

1년전 띄운 가거도 편지... 꿈과 희망 안고 찾아갑니다

신안 가거도 '느린 우체통' 219통 편지·엽서 발송 지난 1년간 모아... 수취인 없는 편지 22통은 소각

“근심과 걱정, 좌절을 가거도에서 희망으로”

다사다난(多事多難)했던 한해를 보내는 12월 15일, 신안군에서 자기가 지어낸 편지나 지인이 보낸 편지를 뒤늦게 받는다면 어떤 기분일까? 이메일을 주로 사용하는 까닭에 손편지 쓰기가 드문 요즘, 편지를 보관해 두었다가 1년에 한번 연말에 맞춰 발송해주는 ‘느린 우체통’이 눈길을 끌고 있다. 화제의 우체통은 신안군 흑산면 가거도에 위치한 ‘송년(送年) 우체통’.

신안군 가거도 출장소는 지난 15일 가거도 현지에서 한해를 보내는 아쉬움과 새해를 맞이하는 ‘희망의 우편엽서 보내기’ 행사를 가졌다.

이날 가거도 출장소는 올 한 해 동안 매일 ‘송년 우체통’에서 수거한 219통의

편지와 엽서 가운데 197통은 주소지로 발송하고, 지정 수취인이 없어 시연만 담은 22통은 지는 해와 함께 소각했다. ‘송년 우체통’에 놓여진 후 길게는 1년여를, 짧게는 수일간 출장소에 보관했다가 ‘느리게’ 보내진 편지들이다. 발송된 편지 중에는 미국과 일본으로 간 것도 1통씩 있었다.

신안군이 ‘송년 우체통’을 세운 때는 지난해 6월, 가거도를 찾는 관광객들이 근심과 절망·좌절 등 어렵고 힘든 사연을 편지에 담아 지는 해와 함께 보내고, 밝고 희망찬 미래를 맞이하기를 바라는 취지에서 7600만원의 예산을 들여 ‘송년 우체통’을 설치했다.

바다제비를 형상화한 ‘송년 우체통’은 너비 1.49m×폭 88cm×높이 3.12m 크기 로, 가거도 서쪽으로 팔을 내민 섬등반도

에 세워졌다. 독실산 등산로 입구로 바다새(바다제비·빨소오리·슴새) 번식지인 구골도(천연기념물 제341호)가 한눈에 내려다보이는 곳이다.

군은 관광객들이 ‘송년 우체통’을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가거도 8경 등 사진을 넣은 10여 종류의 우편엽서를 제작해 숙박업소와 군 출장소·가거도우체국·패속여객선, 유관기관·단체 등 25곳에 비치했다. 또한 목포우체국과 사서함 사용계약을 체결해 가거도를 방문하지 않고 육지에서라도 가거도 ‘송년 우체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양모(광주시 동구)씨는 “암 투병으로 힐링을 위해 정정지역 가거도를 찾다가 우연히 ‘송년 우체통’을 보고 내가 살아온 52년의 세월과 건강회복의 소망을 편지에 담았다”며 “편지의 소원이 꼭 이루어지리라 믿는다”고 말했다.

발송된 편지들은 밀봉돼 있어 사연을 직접 살펴볼 수는 없다. 하지만 가족들의 건강과 자녀의 취업, 남북통일 등 갖가지 사연들을 편지에 담아 ‘송년 우체통’에



가거도출장소 직원들이 15일 송년 우체통 엽서 발송 기념행사를 가진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신안군 제공)

넣었을 것으로 짐작된다.

고경남 가거도 출장소장은 “전국 각지에서 많은 힐링객들이 가거도를 방문해 ‘송년 우체통’에 편지를 넣었다. 수거한 219통 중 90%는 가거도 현지에서, 나머지 10%는 육지에서 사서함을 이용해 보낸 편지”라며 “가족이나 지인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보내고, 연말에 본인들이 직접 받아보는 새로운 느낌을 갖기 위한 사연들이 많을 것 같다”고 말했다.

가거도는 주민 500여명이 살고 있는 우리나라 맨 서쪽 섬으로, 목포항에서 쾌속선으로 4시간이 걸리며 연간 4만여명의 관광객이 찾고 있다.

/신안=이상선기자 sslee@

한국전력 오늘 빛가람도시 개청식

정홍원 국무총리 참석

국내 최대 공기기업인 한국전력 개청식이 17일 오후 2시 30분 한국전력 한빛홀에서 정홍원 국무총리,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윤장현 광주시장, 이낙연 전남지사, 강인규 나주시장, 조환희 한전 사장, 지역주민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다.

한전 측은 이날 개청식에 맞춰 지하 2층 지상 31층 규모인 한전 신사옥 내 최고층인 31층 스카이라인지, 5만여권의 도서가 구비된 1층 디지털 도서관, 1000석 규모의 강당, 신재생에너지 관련 전시시설인 GEP파빌리온 등을 지역주민들에게 개방한다.

윤 시장과 이 지사는 물론 정홍원 국무총리, 윤상직 장관, 강인규 나주시장, 조환희 한전 사장, 지역주민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다.



정홍원 총리

나주시장과 한전 등 이전공공기관장 16명으로 구성된 공공기관장 협의회는 오는 24일 오후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처음으로 개최될 예정이다.

한편 올해 마지막 이전 공공기관인 사립학교교직원연공금리공단(이전 인원 188명)이 지난 14일 이전을 완료하고 15일부터 업무를 개시했다. 이에 따라 16개 이전 공공기관 가운데 13개 기관이 이전을 완료했으며, 내년 말까지 한국인터넷진흥원 등 3곳이 이전을 마칠 예정이다.

/윤현석기자chadol@kwangju.co.kr

전남 쌀 5개 브랜드 ‘고품질’ 선정... 12년 연속 최다

‘대숲 맑은 담양쌀’ 전국 최고

농림축산식품부가 주최하고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가 주관하는 ‘2014년 전국 12대 고품질 브랜드 쌀 평가’에서 전남도 브랜드쌀 5개가 선정돼 12년 연속 전국 최다를 기록했다.

담양 금성농협의 ‘대숲맑은 담양쌀’은 올해 전국 최고의 쌀로 선발되기도 했다.

16일 전남도에 따르면 연도별 전남 브랜드 쌀 선정 개수는 지난 2003년 4개, 2004년 3개, 2005년 4개, 2006년 5개, 2007년 5개, 2008년 4개, 2009년 4개, 2010년 5개, 2011년 4개, 2012년 4개, 2013년 6개 등이다.

올해 선정된 브랜드는 금상에 ‘대숲맑은 담양쌀’을 비롯해 함평군농협의 ‘나비

쌀’과 강진군농협의 ‘프리미엄 호평’이 은상, 해남 옥전농협의 ‘한눈에 반한 쌀’과 고흥 흥양농협의 ‘수호천사 건감미’가 각각 동상에 선정됐다. 영암군농협의 ‘달마지살골드’는 12대 브랜드와는 별도로 ‘지역을 빛낸 쌀’로 선정됐다.

이번 평가 결과를 통해 전남 쌀은 쌀 주산지인 친환경 농업의 메카라는 명성에 걸맞게 대한민국 최고의 명품 쌀로서의 입지를 확고하게 굳히게 됐다. ‘전국 고품질 브랜드 쌀 평가’는 지난 2003년부터 매년 실시하는 국내 최고 권위의 쌀 관련 평가로, 전국 1800여 쌀 브랜드 중 각 시도



에서 추천한 브랜드를 대상으로 완전미 등 외관상 품위, 맛, 품종 혼합률, 브랜드 관리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우수 브랜드 12개를 선정하고 있다.

김태환 전라남도 식품유통과장은 “전남 쌀이 올해 브랜드쌀에 전국 최다로 선정된 것은 그동안 도와 시·군 등 행정기관과 생산자 단체가 힘을 모아 고품질 쌀 생산정책을 적극 추진한 결과”라며 “앞으로 수도권 등 친환경 쌀 학교급식 공급 확대와 전남 쌀 판매 확대에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상식은 오는 19일 서울 양재동의 aT센터에서 이동필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된다.

/윤현석기자chadol@

담뱃값 포장지에 ‘라이트’ ‘마일드’ 못쓴다

정부는 16일 “담뱃값 인상을 앞두고 담배소비 증가에 따른 물량 부족 현상을 완화하기 위해 도·소매점에 담배 공급량을 확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담뱃값 포장지에 ‘라이트’, ‘마일드’ 등 건강에 덜 유해한 것으로 오해하게 하는 수식어를 붙일 수 없게 된다. 정부는

이날 정부서술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담배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담배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하게 할 우려가 있어 금지되는 단어로 ‘라이트’, ‘연한’, ‘마일드’, ‘저타르’, ‘순(純)’이 포함됐다.

/연합뉴스

“할머니댁 방문 자제해 주세요” 영화 ‘남아, 그강을...’ 진모영 감독 편지

“(강계열) 할머니와 가족 모두 현재 상중입니다. 소상(1주기)을 갖 지났고 대상(2주기)까지 지나야 상이 끝나게 됩니다. 이렇게 아직도 상중인 집안에 찾아가지 말아 주셨으면 합니다.”

연일 화제를 모으며 흥행 중인 다큐멘터리 영화 ‘남아, 그 강을 건너지 마오’ 진모영 감독이 16일 영화 배급사인 대명문화공장과 CGV아트하우스를 통해 언론과 관객에게 편지를 보냈다.

영화가 지난 14일 100만 명을 돌파하는 등 흥행하면서 담뱃가 영화 속 주인공인

강계열 할머니와 가족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진 감독은 “할아버지가 떠나신 후, 할머니는 비교적 건강하고 집에서 지내셨다”면서 “편히 모시겠다는 자녀들을 물리치고, 76년 일생의 연인과 함께한 그곳

에서 지내길 원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진 감독에 따르면 강 할머니는 최근 “OOO인데요, 지금 댁에 계시지요? 찾아 봐도 될까요?”라는 전화를 받고 자녀의 집으로 거처를 옮겼고 현재는 자녀와 함께 생활하고 있다. 앞서 지난 13일 광주를 찾은 진 감독은 “제가 할머니께 큰 불편을 끼친 것 같아 죄인 된 마음”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김경민기자kki@

노안(老眼)도 치료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광고를 보면서 돋보기를 쓰고 보시나요?
아니면, 쓰던 안경을 벗고 보시나요?

노안시력교정수술로
편한 생활이 가능합니다.

1566-9988

신세계백화점 대각선 맞은편 눈모양빌딩을 찾으세요

라식수술을 하듯 각막을 깎아 초점을 맞춰 노안치료
인공 수정체 삽입으로 백내장과 함께 노안치료
각막에 초정밀 미세 레이저를 삽입하여 노안치료

신세계백화점
신세계백화점

※ 부작용 : 수술 초기 야간 빛반전, 노안라식 수술시 건조증 등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의료광고심의위원회 제 140611-중-59153호

2015 선견지명 부동산 시장 전망과 분석 무료 대 특강

부동산 최고 실무 전문가 김영표 대표의 확실하게 성공하는 부동산 성공투자 비법!!

장 소	NC백화점(구. 현대) (10층 문화센터)
일 시	2014. 12. 17(수) 2시/7시
문의전화	(062) 383-1330(사전 예약)

강 / 의 / 내 / 용

- 2014년, 본격적 부동산 회복시장의 신호탄을 쏘았다 - 최경환 노믹스가 부동산 시장에 미칠 영향
- 광주·전남지역 부동산 시장 동향 및 주택시장 투자 전략
- 전남 개발 계획에 따른 토지 투자처 매물분석 및 공개

김영표 부동산 실전문자 전문가
(현) 영지R&D 부동산연구소 대표
(현) 영지부동산 아카데미 대표
(현) 각종 관공서 및 대학교 초빙 특강 강사
(현) 전국 순회 부동산 세미나 80회 이상 강의
(현) 롯데백화점 및 각종 백화점 문화센터 특강 강의
뉴스웨이 인터넷신문 칼럼 게재중

NAVER 영지R&D부동산투자연구소 검색

고품격 펜션 신축 매매

연 17% 고수익 명품 풀빌라

- 전남 최대 관광도시 여수 등산 앞 바다 위치
- 5년 장기 임대 확정(임차인 확정 대기중)
- 월차임 월 810만원(연 9720만원 수익)
- 매매가 8억 8천 5백만원(융자 50% 가능)
- 실 투자금 4억4천5백만원(수익률 17% 확정)

동영공인중개사사무소
H.010-2886-0440, ☎385-7013